

# 제 12회 JW성천상

## THE 2024 JW SEONGCHEON PRIZE

| 주최 : JW이종호재단(舊중외학술복지재단)

| 주관 : JW성천상위원회

###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참 의료인을 찾습니다”

JW이종호재단(舊중외학술복지재단)은 1945년 JW중외제약을 창업한 故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정신을 전하고, 인류의 건강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2012년 JW성천상을 제정했습니다.

본 상은 국적을 초월하여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참 인술을 펼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의료인을 추천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 부상 : 상금 1억 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역대 수상자

회	성명	소 속	공 적
1회	배현정	배현정 전진상 의원 원장	벨기에에서 온 파란 눈의 천사 달동네 사랑의 인술 40년
2회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편견의 병을 가진 한센인들의 20년 지기
3회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	소외된 6만 입양 아이들의 주치의
4회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	걷지 못하는 소외 이웃 위한 외길 인생 33년
5회	한원주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내과과장	청진기 든 91세 수호천사, 노인 환자의 어머니
6회	신완식	요셉의원 의무원장	영등포 쪽방촌의 슈바이처, 쪽방촌·노숙자 무료진료 10년
7회	이강안	청산도 푸른미중앙의원 원장	하루 120명 환자 돌보는 섬마을 슈바이처
8회	백영심	말라위 대양누가병원 간호사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에서 약 30년 동안 의료봉사
9회	이미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 전문의	장애인 전인재활 개념 정립 및 장애재활의 인프라 개척
10회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전문의	노숙인을 치료하는 길 위의 의사
11회	김동연 안미홍	글로벌케어 내과전문의 누가광명의원 가정의학과전문의	방글라데시에 생명을 선물한 부부의사

#### ■ JW이종호재단은

2011년 JW 중외그룹 故이종호 회장께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생명존중의 정신을 계승, 전파하기위해 장애인 복지 후원사업, JW성천상을 통한 참다운 보건의료인 발굴, 기초과학연구자 지원, 장애예술가 작품공모전 후원 등 소외된 곳을 찾아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I. 수상 자격 제12회 JW성천상 후보 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의료봉사 업적을 이룩한 의료인
  - 의료봉사 업적이 현저하여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의료인
  - 추천마감일(2024. 03. 08) 현재 생존해 있는 의료인

- II. 심사 기준 JW성천상 수상자의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의료계의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성천상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항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업 적 도	의료봉사의 실적 정도, 업적 수준, 지속 기간
기 여 도	의료복지 향상, 사회발전 기여도
난 이 도	업적 달성을 위한 열악한 환경조건, 오지, 음지 정도
평 판 도	의료계 및 사회복지 종사자 집단의 평판 및 지지 정도
기대효과	수상에 따른 사회공헌 확대 효과 정도
성 장 성	수상에 따른 수상자 역량 발전 가능성

- III. 시상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 원이 수여됩니다.

#### IV. 심사 일정

2024년 1월	2024년 3월 08일	2024년 3월 ~ 5월	2024년 6월	2024년 9월
제12회 JW성천상 후보 추천 요청서 발송	추천서 접수 마감	서류심사 · 현장 또는 대면심사	수상자 발표	시상식

#### V. 추천서 제출

- 제출 서류
    - 1차 - 추천서 접수 (홈페이지([www.jw-foundation.or.kr](http://www.jw-foundation.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2차 - 업적증빙자료 접수 (1차 추천서 접수 이후, 재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 제출방법 : 한글로 작성하여 e-mail 제출 (E. [jwf@jwhealthcare.com](mailto:jwf@jwhealthcare.com))
  - 문의사항 : JW이종호재단(舊중의학술복지재단) 사무국 (T. 02-840-6938)
- \* JW성천상 심사는 ‘추천서’가 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별첨)

## <제 1회 성천상 수상자 : 전진상의원 배현정 원장>

### 東亞日報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A27면 투데이

#### 40여년간 39만명 무료 진료 브라쉴르 원장, 성천상 수상

벨기에 출신 마리 헬렌 브라쉴르(한국명 배현정·67·사진) 전진상의원 원장이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리고 참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정했다.

브라쉴르 원장은 40여 년 동안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저소득층 39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수상자가 됐다. 상금은 1억 원.

브라쉴르 원장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72년. 고향 벨기에에서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제가톨릭형제회 단원 신분으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1975년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인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간호사로 의료봉사에 한계를 느껴 1981년 중앙대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1999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심사를 총괄한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대 의대 명예총장)은 "이기석 사장은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브라쉴르 원장은 그런 이 사장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참 의료인"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제 2회 성천상 수상자 :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 朝鮮日報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A27면 사람들

#### 한센인 소록도에서 '나홀로 의사' 12년

##### 소록도병원 오동찬 부장 '성천賞'

조선대 치대를 막 졸업한 젊은 의사가 1995년 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국립 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로 지원했다. 난소암 말기이던 어머니가 극구 만류했지만, 아들은 "딱 1년만 근무하고 오겠다"고 했다.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20년째 국립소록도병원을 지켜온 오동찬(46) 의료부장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 부장을 선정했다. 성천상은 JW



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지난해 제정됐다.

"공중보건의 1년 근무가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

으니깐 어머니가 소록도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 대하듯 환자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소록도를 다녀간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록도병원에 그 말고는 다른 의사가 없었다. 치과의사인 그가 내과와 외과 치료도 맡았었다. 이영완 기자

〈제 3회 성천상 수상자 :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東亞日報

2015년 07월 14일 화요일 A24면 투데이

# 반백년 6만여명 돌본 ‘고아들의 의사’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 명예원장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은 5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고아를 보살피 온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82·사진)을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천상은 고이기석 중외그룹 창업자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1958년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한 조 명예원장은 1962년부터 15년간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으



로 자리를 옮겨 6만여 명의 입양 예정 고아들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수상 소식을 전달받은 조 명예원장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제 4회 성천상 수상자 : 여수에양병원 김인권 명예원장〉

중앙일보

2016년 03월 05일 금요일 023면 사설/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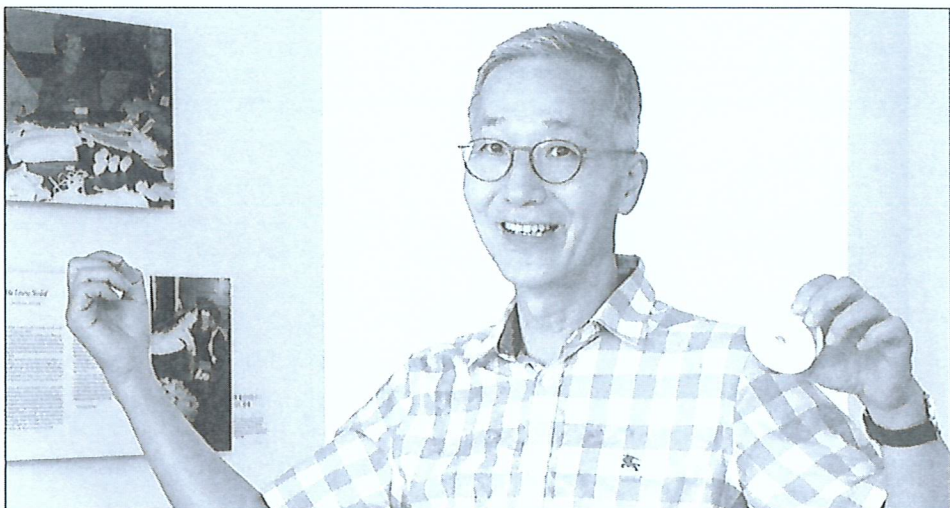


채인택의 직격 인터뷰 한센병 33년 헌신... 성천상받는 김인권 명예원장

(여수에양병원장)

## “꿈꿨던 의사상 살아 있기에 주저 없이 한센병원을 택했다”

전남 순천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를 달리다 여수공항 뒤로 가면 여수에양병원(여수에양)이 나타난다. 남도의 외진 곳에 위치했지만 정형외과와 피부과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의 김인권(65) 명예원장이 최근 제4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려 몸자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귀감이 된 의료인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김 명예원장은 이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사지교정 수술과 소아마비 환자의 재건·재활 치료에 헌신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1980~83년 소록도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한 뒤 83년 이 병원에 부임해 평생 환자를 돌봤다. 한센병 환자께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던 청년 의사는 이제 백발의 신사가 돼 취재진을 맞았다.



한센병 소아마비 환자와 장애인을 치료해 온 여수에양병원 김인권 원장이 병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병원이 신교서들로부터 받았던 사람과 헌신. 의학 지식을 저3세대에 전수할 꿈을 꾸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오종찬



## <제 5회 성천상 수상자 :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한원주 내과과장>

이웃사랑

2017년 07월 11일 화요일 024면

‘성천상’ 수상... 국순 원역 의사 한원주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과장

### “아흔 넘어도 의료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이웃이 필요해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건강하여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시 더 나은 의료봉사를 해야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발자취가 반짝입니다.”

국순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중외의료복지재단은 제5회 성천상 수상자로 한원주(91)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내과과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원주 과장은 1949년 경상도거창의 한 전통약국을 졸업하고 수련을 한 뒤 1968년에 서울 동대문구에 개원의를 시작하였다. 열렬한 성의 보정으로 개인적 열정과 병소의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봉사에 전념해 왔다. 1978년에는 아예 병원 문을 닫고 한국 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설 의료선교의원이 되었으며 전담적인 의료봉사에 나섰다. 그는 2006년까지 28년간 봉사를 할 정도로 삶이 열려진 노숙자 등 취약계층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봤다. 한 과장은 “아이디어 열안이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

매일 10시간씩 노인 건강 관리에 병원 한쪽에 잠자리 마련 금요일까지 일한 뒤 일요일 복귀 “의사 소임했음뿐...살필까 기뻐”



#### 성천상

JW중외제약의 창립자인 고령의 성천 이 가족 선생의 성의품과 정신을 기려 금주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후에 추경되는 상 의료진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



그는 일제시대인 1933년 경남 마산에서 평생을 배검역 비자로 금주 성천 병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이후에는 노후 자금을 남기고 병원을 모두 정리해 사가게 되었다.

한 과장이 의료봉사에 열정을 다한 게 된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다. 한 과장은 “1978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자를 땅에, 지리 등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우울에 빠졌다”며 “그러다 남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살리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이것이 저 죽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감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살림만 돌본 것은 아니었다

한 과장은 1982년 국내 최초로 환자의 정신·신경까지 치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정신(心身)치유진료소’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의료제대로 이루어진 정신·신경·정신과를 지원해 자립을 도왔다. 의료봉사의 자금을 단순한 정성치로에서 자립과 지원로 넣은 것이다.

한 과장은 2014년 1008년 의료선교의원이자 은퇴한 후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병원을 열었다. 지금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양병원에서 노약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아들 딸 한 부처를 손자로 데리고 금요일까지 일 한 뒤 돌아온다. 원로원 병역 병력으로 돌아온다.

이성진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한원주 과장은 개인의 열정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료 선봉을 세웠다는 것이 성천상 수여의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원주 과장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했음을 알리며 감사드리고,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gj@jw.com

## <제 6회 성천상 수상자 : 요셉의원 신완식 의무원장>

매일경제

2018년 07월 24일 화요일 A32면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르는 의사 선생님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 제6회 성천상 수상

10년째 부보수 의료봉사  
‘영등포 슈바이처’로 불려

“봉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얻는 과정입니다.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이곳에 적응하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료 시각지대에 있던 환자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은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식을 이같이 밝혔다.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외의료복지재단은 서울 영등포 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신완식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원장을 제6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사회 심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신 원장은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 누구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



는 일에 헌신해 왔다는 점이 고(故) 성천 이거식 선생의 생애 존중 정신과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28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원장은 가톨릭의대 교수직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 2009년 요셉의원 의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10년째 노숙자, 임신을 중독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부보수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신 원장은 “안정적인 길이었지만 대학병원 교수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다”며 “세상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평소 신념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요셉의원에서 일하면서 나 또한 얻은 것이 많다”며 “환자들 상처를 꿰뚫고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치료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요셉의원에 왔을 때 환자들은 저를 신뢰하지 못했고 임부는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며 “지금 상태가 이리이러하니 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줘도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며 기존 약을 달라는 환자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 원장은 환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신뢰관계를 맺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 사이 가장 믿고 따르는 ‘의사 선생님’이 됐다.

신 원장 부임 후 요셉의원은 전신화면 진료체계로 구축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또 음악 치료,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환자들의 정신적 치유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혜수 기자



## <제 7회 성천상 수상자 : 청산도 푸른외증양의원 이강안 원장>

朝鮮日報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A23면

### 하루 120명 환자 돌보는 '섬마을 슈바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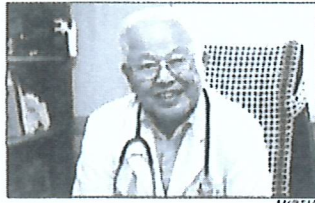
이강안 원장, 제7회 성천상 수상

"한두 해 정도만 봉사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노릇 10년이 넘었어요. 이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의료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16년째 홀로 안술을 펼쳐온 이강안(83·사진) 푸른외증양의원 원장이 15일 제7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리는 상이다. 중외의료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주관한다.

섬 주민들은 그를 '청산도의 슈바이처'로 부른다. 이 원장은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서울에서 유방 외과외과로 활동했다. 이듬해 푸른외증양의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단둘이 청산도로 내려갔다. 완도에서도 배로 1시간을 가야 하는 오지다.

이 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 40분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간호사 1명만 있는 병원에



서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 여서도·모도 등 인근 섬까지 배를 타고 무료로 진료 활동을 한다. 종종 환자 형문에 손을 넣어 관장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그는 "남짓바늘에 손을 찔린 사람, 물고기에게 물린 사람처럼 서울에선 본 적 없는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병생 거친 바닷바람 맞으며 일해 몸이 상한 노인들이 많이 주말에도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상금 1억원 중 일부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청산도 장학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광주광역시 플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다.

최인준 기자

## <제 8회 성천상 수상자 : 말라위 대양누가병원 백영심 간호사>

매일경제

2020년 07월 21일 화요일 A32면

### 말라위에 싹트운 의료희망...간호대학도 세워

30년 의료봉사 백영심 간호사 JW중외제약 '성천상' 받아

스물여덟 꽃다운 여인은 우연히 아프리카를 찾았다가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미련 없이 아프리카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도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시스터'로 불린다. 현지인들이 가족 같으며 누나나 언니로 부르기 때문이다.

20일 JW중외제약 중외의료복지재단이 매년 국내 의료진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들을 뽑아 시상하는 '성천상'의 올해 제8회 수상자로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에서 일하는 한국인 백영심 간호사(58)가 선정됐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모두 의사들만 이상을 받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간호사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성천상은 중외제약 창업이자 국내 최초 수매제 개발에 앞선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된 상이다.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백 간호사는 20일 매일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이상을 주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주인 라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고려대부속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그는 1990년 교회 선교봉사를 위해 아프리카 케냐를 처음 찾았다. 그곳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보며 백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케냐뿐 아니라 인근 말라위에 가보

28살 때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의사 아닌 간호사로 첫 수상

간이진료소 만들어 환자 돌봐  
현지 대통령도 '시스터'라 불러  
상금 1억원으로 학교 지을 것

니 그 나라는 인구수 대비 의료진 수가 세계에서 가장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라위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아예 여기서 살기로요."

백씨는 1993년부터 말라위에서 거주하며 현지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남부 아프리카 간호 업무를 관할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간호협회 주관 시험에도 도전해 현지 간호사 자격까지 얻었다. 그는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라위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좀 더 자주 병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간이진료소'다. 백씨는 교회와 일부 독지가들의 협조를 얻어 말라위에 이동형 간이진료소를 군데군데 지어가며 환자를 돌봤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병을 찾아 찾아다니는 식으로 진료소를 만들었다.

백씨는 진료소에서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지만 전문 인력과 의약품 부족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선 병원 건립을 전격 추진했다. 2008년 한국 내 기업의 도움을 얻어 현지에 대양



JW중외제약 중외의료복지재단이 제8회 '성천상' 수상자로 30년째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헌신한 백영심 간호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백 간호사가 2015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환자 이란이를 돌보는 채 환자에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JW중외제약)

누가병원을 세웠다. 말라위 수도 림롱에 들어선 이 병원은 현재 연간 2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또 백씨는 2010년 대양간호대학까지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라위는 영양실조도 심각했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못해 여러 감염병에 취약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말라위 사람들은 백씨를 '시스터 백'으로 부른다. 그는 "내가 외국인이다 보니 현지인들도 처음엔 나를 '마담'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이 부담스러워 가족이나 친구처럼 어겨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시스터'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말라위 대통령도 나를

시스터 백이라고 칭한다"고 전했다. 그는 말라위에 심면서 몇 차례씩 자신의 국내 거주지인 제주도를 오갔다. 올해는 3월 말 제주도를 찾았다가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여태 말라위에 머물러가고 있다. 백씨는 "코로나19가 일론 찾아들기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다"며 "그래야 말라위로 다시 들어가 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번 성천상 상금 1억원을 역시 말라위를 위해 쓸 생각이다. 그는 "현지에서 학교를 짓거나 의약품 구입하는 데 이번 성금을 소중하게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씨에 대한 성천상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서울 서초구 JW중외제약 본사에서 열린다. 서진우 기자



## <제 9회 성천상 수상자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미경 전문의>

위대인물

2021년 09월 10일 금요일 026면

### 33년 장애인 재활치료 이미경 '성천상'

JW그룹 제9회 성천상

2021 SEONGCHEON PRIZE

"남은 일생도 '보통의 삶'을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미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JW그룹 본사에서 열린 제9회 성천상 시상식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시던 의사이신 아버지의 의사이신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남을 위한 삶'에 대한 보람을 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JW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미경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씨가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교육·직업·사회참여 등 일상영역 전반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전인적 재활치료 개념을 창립하는 등 장애인 재활의 인프라를 가차없이 구축해 온 점에 높이 평가했다. 이씨는 이날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서 상패와 상금 1억원을 받았다.

1984년 기골맥의대를 졸업한 이씨는 "조금 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의술을 펼치고 싶다"라는



JW그룹은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미경(오른쪽) 전문의를 선정했다. 왼쪽은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 JW그룹 제공

신념 아래 재활의학과로 전로를 걸었다. 이후 4년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19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상임의사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 국내 재활의학은 미인기 전공분야였다. 그는 33년간 국내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 상근 의사로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힘써왔다.

장애재활 관련 도서 '스노센션, 우리 아이 왜 이렇게?'를 발간하고 국내 최초로 '장애 예방 비디오'를 제작해 총 1만 1500부를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내 장애인 재활의학 발전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미리 기자**

## <제10회 성천상 수상자 : 서울시립서북병원 최영아 내과전문의>

매일경제

2022년 07월 05일 화요일 A36면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제10회 성천상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 사양  
20여년 노숙인 위한 참 인술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52·사진)를 선정했다.

4일 JW중외제약은 "'의사는 가장 병이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를 사양하면서 20여 년간 노숙인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성현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리는 상이다.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참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해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의료인을 매년 1명씩 발굴한다.

최 전문의가 봉사의 삶을 결심한 것은 1989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입학



기로 결심한다.

그가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2001년은 노숙인 치료를 본격화한 시기였다. 2002년 청량리 뒷골목에 '밥퍼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와 '다일전 사병원'을 세운 그가 의무원장을 맡을 당시 하루 진료 환자는 100명이 넘었으나 월급은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후 일반병원 개원으로 의사의 삶을 누리는 대신 그는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의 삶을 이어갔다. 2004년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있

한 후 예과 2학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면서였다. 길가에 주저앉아 폭우 속 빗물에 섞인 밥을 먹는 노숙인들을 본 그는 노숙인들의 의료 공백 현실을 개선하는데 일생을 바치

는 '요셉의원'에서 플타임 자원봉사의사로 근무했다. 2009년엔 서울역 앞에 노숙인지원 사업을 하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다시서기의원'을 세워 여성 노숙인 쉼터 '마더하우스'를 만들었다. 그가 2015년 출간한 '질병과 가난한 삶'은 14년간 진료한 노숙인들의 질병을 분석한 사회의학 전문서다. 국내에서 드물게 노숙인들을 위한 진료와 사회 복지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학술서로 평가받는다. 그해 재활과 회복을 돕는 '회복나눔네트워크'를 만든 그는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노숙인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최 전문의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평생 인술을 펼쳐왔다는 점은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서울 서초동 JW중외제약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서균 기자**

## <제11회 JW성천상 수상자 : 김동연/안미홍 부부의사>

15년간 방글라데시서 생명 살린 의사 부부

김동연·안미홍씨 'JW성천상'  
"낙후된 현실 보고 나사아겠다 결심"

유지한 기자

업데이트 2023.07.18. 04:56



/JW그룹

의사 김동연(49)씨와 아내 안미홍(49)씨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방글라데시의 한 시골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다. 처음에는 경험을 넓히고자 갔지만 환자를 돌보다 보니 어느덧 15년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부부는 열악한 환경에 죽어가던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부부는 17일 제11회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신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이다. 김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저는 평범한 의사다"라며 "의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에 가난하고 의료 환경이 낙후된 나라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안씨는 각각 연세대 원주여대와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어릴 적부터 의료 선교의 꿈을 키우던 동갑내기 친구는 1999년 결혼했다. 남편은 내과, 아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된 뒤 200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견의사로 방글라데시로 함께 떠났다. 김씨는 "다른 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현실을 보고 내가 필요한 곳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2년 반의 파견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부부는 2007년 다시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부부가 일한 병원은 수도 다카에서 300km 떨어진 램(LAMB) 병원. 병원 밖 1km만 나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응급치도 없어 환자를 '력사(인력기)'로 옮겨야 할 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했다. 부부는 이곳에서 응급·중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응급실에서 응급 혈전 용해술 등을 최초로 시행했고 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과정과 중환자 전문 치료 가이드라인을 세르게 만들었다.

부부는 2018년 15년의 현지 의료 활동을 마치고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했다. 또다른 해외 의료 활동 기회에 대비해 김씨는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안씨는 인문 사회의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김씨는 "마음속으로 늘 계획하고 있다"며 "꼭 다시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